

社說

자주·혁신의길 멀어져만 간다 대토론회, 주제별 입장발표에만 그쳐

본교가 개최해 최대의 위
기 국면을 맞아 각 주체들
에는 오늘의 사태수습을 위한
혁신적 방향 모색에 부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열린 「동
국의 자주혁신을 위한 범대학
대토론회」는 이런 의미에서 관
심이 집중되었으나 전혀 기대
에 미치지 못한채 막을 내렸
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토론회는 89년 하반기 학
자부의 과제를 점검하고 현재
의 냉철한 상황 판단에 의거
한 사태수습과 대안제시라는 명
백한 과제를 의면하고 예전의
한심한 태도의 재현이었다.

총동맹회와 총단수습대책위가
불합한 가운데 예정시간보다도
한참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비
주적 총상선출, 부정입학 문제
진상규명에 대한 대표토론회
도 책임을 서로 미루는 자리
에 그쳤을 뿐이었다.

학원자주와 부정의 벽한 감
동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생
생하게 살아있을진대 다가올 총
상선출을 통해 굳건한 자주동
맹의 틀을 마련해야 할 시
점에서 교수회·재단측의 불성
실한 태도는 학자부 실천의지
를 근본적으로 불신케하며 학
원자주체력을 기만하는 것이라
아니할수없다.

한바탕되어 어찌걸고 결한
동국자주혁신의 대정은 다 어
디로 가고 스스로의 책임조차
부인하고 그저 무관심속에 수
수무관관 해서는 되겠는가?

총학생선거 11월 환원은 시기상조 지금부터 민주총장선출 원칙 마련할때

총학생회 선거시기를 현행의
3월에서 11월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대토론회가 지난주부터
교내 곳곳에서 보여지며 이에대
한 논란이 계속되고있다. 총학
선거의 시기는 총학생회 사정
의 심대성에 따라 거의 연례
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지만,
민주총장 선출을 최대의 과제
로 안고있는 현시기에 다시 제
기되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 우리는 우려
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 21대 총
학회의 모습에 대한 학생대중의
실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되기 때문이다. 이미 2년째 계
속해오고 있는 학자부가 오히
려 오히려 지지부진한 양상
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학생대
중의 열망 결집 부재와 학생
회 체제의 위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외바른 지도의 구심으로서
지 못하고 있는 총학의 부재
과 내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리 새삼스러
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총학의 난항은 3월
선거에 따라 1, 2월의 선거준
비 작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학생회 체제 및 사업의 전장을
새로 여울을 갖지 못한채 허
겁지급 출발부터 하고 난 허
연한 난국주의에 연유하며, 잘
못가운 첫단추의 오류가 일기
내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총

이 는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
로 단정지를 일기 아니다. 각
주체들간의 각고의 자성과 책
무를 솔바로 이행할수 있는 면
모를 갖추는 노력이 절실히 요
구된다.

재단이사회는 현사태가 야기
되기까지의 책임을 통감해야하
는 한편 동국발전의 의지로서
열악한 현재경우조의 타파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민
주적인 이사회로 재정비해야 한
다.

교수회나 학교당국 또한 마
찬가지이다. 학자부의 결집들이
란 치욕에서 하루 빨리 일어나
나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책」
이라는 극히 일관된 자세를 버
리고 정권의 확립안정요소를
전적으로 분쇄하는 자세와 학
학부정비리를 '최적화하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어느 하나의 역할도 막을하
지 않을 수 없었으나 1만동
맹의 대표인 총학생회는 동
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
동노력에서도 단연 만인의 역
할을 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
행자와 구성원들 중에서 깨어
나질 못하고있다. 조직적 체제
를 보완해 전체 학우들의 동
참의지를 심어주는 한편 개별
주체들간에서도 보부의 위치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단
기적인 수습보다는 근본적인
신과 함께 백년대계를 위한자
주발전혁신의 발돋움에 필요한
태도이다.

학생회의 침체와 학자부의 정
체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다.
사실상 3월 선거가 갖는 가
장 큰 장점으로 신입생들의 참
여를 보장함으로써 총학을 명
실상부한 전 동국인의 지도구
심으로 세울 수 있다는 기대
는 신입생의 미숙함과 판단력
결여로 오히려 부표행위를 하
기어렵다는 그간의 양상을 통해
무너졌다. 또한 11월에 선거를
치르는 각단체와의 유기적 결합
의 틀이 흔들려 합의본산이라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3월 선거의 오류와
총학의 난항을 지켜보면서 우
리는 11월 선거로의 복귀가 상
당한 선택임을 가진 것으로 파
악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있
어 당장 차기총학부회의 적용
은 현 국면에 비추어 무리한
시도로 보여진다. 그것은 현재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국의 혁신과 학
원자주의 최대관건이 된 민주
적 총장 선출이라는 절대적명
의 과제를 안고있는 상황에서
조급한 총학선거의 병행은 그
나만의 열망마저 분산될 우려
가 있는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두마리의 토끼를 쫓
는 과음을 과시할 때가 아니
다. 지금은 이후 동국의 갈림
길에 걸린 민주총장 선출의 결
속을 지키고 동국의 모든 역
량을 결집, 매진해야 한다.

세계 역사상 왕과 총으로 나
라의 권력을 탈취한 폭군과 독
재자들이 착한 정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들 어리석은 권력의
노예들은 마상(馬)에서 권력
을 빼앗았으므로 백성들을 다스
리는 것도 마상(馬)에서 가
능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을 수는 있
지만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尹 靑 光
<칼럼니스트·동문>

수는 없다는 진리가 역사를 통
해 수없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서 총칼
로 권력을 탈취한 자들이 백성
들을 모욕하고 바로 전치로 만들
기 위해서 새로 개발해낸 것이
이른바 3S 정책이다.

군사독재정권이 제마음대로 권
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악법의
감초처럼 써먹는 3S 정책이란 다
름이던 채스, 스톱쇼, 스크린을 이
용한 대중의 우경화정책이다.

피해적인 행위와 방향에 제
정신을 잃게하고 스톱쇼경기 관
람에 열광케하고 영화의 스크린
에 빠져들어 열이 빠지게 해놓
고 그 사이에 독재자들은 바른
소리하는 사람잡아다 죽이고, 울
은 소리하는 사람 감옥에 집어
넣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비판
하는 사람 잡아먹고, 온갖 얼
잡과 비리를 제마음대로 즐기기
위해서 그들 독재정권들은 으레
히 3S를 무차별 확산시켜왔다.

박정희·김종필을 중심으로한 일
단의 무장군인들이 한강인도교를
넘어 이른바 5.16이후 「도이원
최고」라는 경제제일주의를 내
걸고 세계사상 유례없는 독재

취두르면서 우리나라에도 퍼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3S였다.
새로 개발한 서울 강남의 신
시가지들 한번 돌아보면 박정희
전우환의 독재정권 26년동안 이
방이 어느정도로 피폐와 황폐와
방탕의 도가니로 변했는지 단번
에 알 수 있다.

수십억원을 투자한 초호화 갈비
집, 심수억원을 투자한 예식집,
뉴욕이나 파리에 동경을 두세배
할만큼 초호화시설로 지어놓은 룬
살롱, 카페, 나이트클럽, 카바레,
디스코텍, 진시황도 놀라 자빠질
초호화시설의 호화와 장엄어관들
이 시골그네도 별로없는 강남
구 중심가를 휘었고 있고, 없는
것이 없는 세계의 소비품들이 파
소마더로 밀려서 서울의 강남은



가진자의 사치·향락, 진시황도 놀랄 정도

소외계층 가슴에 반감만 더해가 정권의 「3S」 확산유도 힘쓰리지 말아야

몰아라, 찢어라, 삼켜라, 마셔라,
보아라, 비바라, 뜯아라, 즐겨라,
안아라로 대변될만큼 환락과 방
탕과 음탕의 대명사로 변해 버
렸다.

허영의 도시, 사치의 도시, 방
탕의 도시, 환락의 도시는 이제
서울 어느 한구석만을 점령한 것
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
산되고 있어서 한적한 시골 읍
내에까지 룬살롱, 디스코텍이
어나고 있는가 하면 피폐적인 썩
소스가 농촌도시까지 별들게 하
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초호화판 사
우나전용빌딩이 곳곳에 들어서고
단의 무장군인들이 한강인도교를
넘어 이른바 5.16이후 「도이원
최고」라는 경제제일주의를 내
걸고 세계사상 유례없는 독재

만해도 수백만원 넘고, 한가시
사비가 기만원을 넘는 초호화 호
텔식당에는 자리잡기가 어려운 지
경이 되었다.
미소년들을 고용해서 여자손님
만 모시고 시종들과 성적 노리
개가 되게 하는 「호스트 바」만
해도 백여개를 넣고 있다는 신
문보도이고 보면 과연 이 세상
은 환락과 방탕의 천국으로 변
해버린 느낌이다.

한달 내내 밤을 새우며 돈으로 감
히 어떻게 한번에 몇십만원어치
의 술을 마실수 있으며, 정직하
게 세금내고, 정당하게 임금주고
사업하는 자가 감히 무슨 돈으
로 여대의 자기용을 물리고 돈
내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고 몇
천만원 들여 차량을 하고 다닐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학교 어린이가 1백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백화점에 가서 45
만원짜리 외국제 장난감을 마음
대로 사가는 세상, 2억원의 돈이
있어야 열리는 외국산 승용차가
물리나게 팔리는 세상, 수천만원
짜리 외국제 여자옷, 수백만원짜리
여자옷이 무성하게 팔려나가는 세
상, 70만원짜리 외국제 구두에 1
천만원어치의 장신구를 걸치고
다니는 여자들이 즐비한 세상
1억 5천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이 손쉽게 팔리는 세상, 이렇
게 그야말로 「있는자」들의 방탕
과 허영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눈을 바로 뜨고 세상
을 보라. 이렇듯 내집이 없이 셋
방살이를 하고있다.
수십만원의 근로자들이 아직도

피폐업소가 늘어나고 환락업체
가 점점더 쪼들고 점점더 많아
지고 점점더 호화판이 된다는 것
은 그만큼 이렇듯 열광과 부정
과 부패가 늘어나는 것과 무
관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안에서, 민주주의
사회의서 돈만아는사람만 주
조건 적대시 하는 것은 물론
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많은자들이, 잘사는 자들이 총
청망청 방탕과 허영과 사치를
하는 자들이, 과연 올바른 방
탕으로 정당하게 그 돈을 벌었고,
그 재산을 모았느냐 하는데 있
다.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합법적
으로 정당하게 그 돈을 벌고,
그 재산을 모았다고 모든 백성

들이 인정한 할수 있다면, 과소
비가 문제될리가 없고, 사치와 허
영이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백성들은 저를
허영과 사치, 방탕과 향락에 총
청망청 돈을 뿌리는 자들을 보
당한 부자, 당당한 재벌로 영
주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에 위
화감이 생기고 적대감이 확산되
어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백성
들의 눈빛이 노기가 번득이고 있
다.

그러나 대다수 백성들은 저를
허영과 사치, 방탕과 향락에 총
청망청 돈을 뿌리는 자들을 보
당한 부자, 당당한 재벌로 영
주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에 위
화감이 생기고 적대감이 확산되
어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백성
들의 눈빛이 노기가 번득이고 있
다.
그러나 대다수 백성들은 저를
허영과 사치, 방탕과 향락에 총
청망청 돈을 뿌리는 자들을 보
당한 부자, 당당한 재벌로 영
주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에 위
화감이 생기고 적대감이 확산되
어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백성
들의 눈빛이 노기가 번득이고 있
다.

거기에 미국의 쟁거기문화를 무
차별수입, 음란 퇴폐 폭력비디오
타이프까지 범람시켜 세상은 온
통 망쳐놓고 있다. 허영과 사치
가 만연된 나라치고 말하지않는
나라는 없다. 음란 퇴폐 폭력적
기능을 부리는 사회치고 잘되는
사회가 없다.

민부의 적자가 심해지면 심해
질수록 세상은 그만큼 살기가
어려지고 가진 자들의 가슴속
에 한 (恨)과 증오심을 심어줄
국은 극단적인 부정과파괴를 촉
발하게 된다. 그렇게 할경우 자
칠향한 계급투쟁이나 계급혁명
이나 급격한 사회개혁론이 공
감을 받게될 가능성이높아지고,
그렇게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체도 위협받을 위험이 있
다.

있는자들도 정부당국도 이제는
제 정신을 차려서 향락과 방탕
과 음탕과 허영 사치를 자제하
서 확고한 가난한 백성들의 살
맛을 더 이상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루빨리 공정한 분
배가 누구나 수긍할수 있도록
부어져서 소외계층의 가슴에 쌓
일대로 쌓인 적대감과 원한을 씻
어주어야한다.

그리고 합법과 부정, 향락주의
로 일확천금한 자들을 발견하면
하는게 그 무서운 「공권력」을 행
사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몸소 보
이면서 실질적인 모범으로 보여
가며 대중들을 만나야만 한다.
대중과 간부의 올바른 결합을
는 되뇌이는 간부대중들의 처
한 자기반성과 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중간부는 일
반 학우의 거들로서 빛나야만할
것이다. 거울이 바로 자신의 모
습을 비추는 것이라한다면 현
재 대중의 부정력과 대중의 일
반적 정서 및 지도대오에 대한

대중간부는 일반학우의 거울이어야

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성
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
고 조직의 내일을 위해 보전하
고 전파, 확산시키는 물론 구
체적인 체계를 굳건히 다져나가는
사업적 영역 속에서 지휘와 역
할을 보장받고, 실천적으로 검증
받아야만 한다.

기간의 학생회 체제의 사업적
이완과 질소는 부정력의 담보
부족을 피하지 못한 상황을 들
이켜 볼 때 대중간부의 책임성
있는 사업의 원천은 반드시 지
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기본적 관점이 명백히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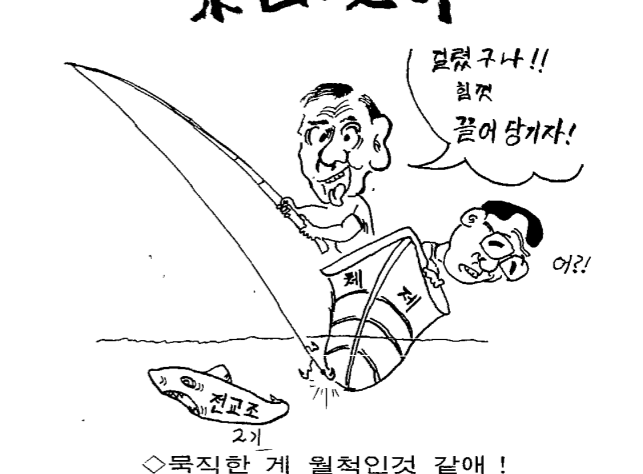
무하는 것은 바로 대중간부들의
책임이라 할수있다. 대중들은 한
상 자신들의 대표로 세워진 간
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며 그들에게 애
정 어린 비판과 질타를 서슴치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대중간부
들은 과연 대중과 함께하고 대
중으로부터 배우며, 대중을 주인으

로 세우고 있는가를 반성해야만
할것이다.
하나, 현재 대중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학생회의 상·중·하층 간
부들은 관성적 모습에서 벗어나
고 있지 못하다. 대중에게 신세
벼를 노래하고 순결한 운동성과
부정의 신심을 요구하는 간부들은

를 깨어있어 사업적 내용진작시
키면서 철저히 헌신해야만한다.
하나, 대중간부들의 일반적인 관
료성을 철저히 깨야만 한다.
대중간부들은 어느 누구의 위
에 군림하거나 무장적 지도를 따
르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
라 바로 일반학우들로부터 투쟁의
내용을 내오고 투쟁을 조직하는
결핵한 자성을 견지해야 하는 사
업을 맡고있는 책임자가 한 것이다.
하나, 대중간부들은 철저한 자
기 책임성을 견지하고 체제화하
는 것이다. 요즘을 흔히 대중들로부터
터 스스로 유린된 간부들이 자
기 책임성을 밝히고 자의적 관
단에 의해 조직적 검열이나 내
용검열이 자신의 지위를 저버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한 대중 간부가 자
기를 철저히 검증받고 지도의
내용을 대중에게 관철시키기 위
해서는 타성의 허물을 벗고 바
로 대상화되고 있는 대중들을 자
신 스스로 옹기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공허한 이론에 의해 학
우들과 만나는 것을 전거하는 것

실천성 담보못해 아쉬워
위지지 못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이
와원 화성화를 양산시키고 문제
점 또한 누락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투쟁의 내용을 전
달하고 투쟁형태를 조직하고자하
고 있지 못하다. 대중에게 신세
벼를 노래하고 순결한 운동성과
부정의 신심을 요구하는 간부들은

東國漫評



◇묵직한 게 월척인것 같애!

동국의 자주화와 개혁을 위하여(1)

금번 부정입학 사태로 인해 전동국인에게 명에로 씌워진 수치와
좌절과 분노를 어떻게 동국 개혁의 소명의식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무릇 대학이란 진리와 정의를 창출해내고, 그것을 진정한 용기로
구현하는 곳이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과 위기도 극복하는 자세 여
하에 따라 대도약의 계기로 반전될 수 있다. 현재 동국이 처한 개
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이대로 혼미와 표류의 상태로 방치했을 때
필경 관권 개입과 여러 외압의 굴레를 자초하리라는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책무를 분담하
고 있는 재단, 학교당국, 교수회 그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사태에
대처하는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는 뼈아픈 자성의 뜻을 모은
우리 교수들은 현안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재단은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획기적으로
면모를 쇄신하고, 학교 발전과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
계획을 제시하라
1. 총장을 위시한 학교 당국은 문교부 감사 결과 등 금번
사태의 진상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및 재발
방지책을 밝혀라

1. 교수회는 금번 사태의 주체적 해결 역할에 미흡했음을
반성하고, 차제에 능동적으로 학교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하라. 또한 이 모든 난국 타개의 주요
한 관건이 되는 총장선출에 즈음하여 교수회는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여 진실로 탁월한 역량의 총장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끝으로, 우리는 결코 또 다른 분열과 불화의 조장이 아니라 진정
한 화합과 결속으로 현안의 주체적 해결과 동국의 자주화와 개혁의
한 단어가 되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우리의 이러한 각성과 분발이 모든 동국 가족들의 허심탄회
한 공감과 동참으로 무궁한 동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서로 격
려하고 다함께 매진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1989년 10월 4일
- | | | | |
|---------|---------|---------|---------|
| 강석원(일문) | 강정구(사회) | 김상중(경영) | 김익기(사회) |
| 김일중(무역) | 김 한(영문) | 김혜중(통계) | 박강식(경제) |
| 박경규(경영) | 배 형(경제) | 서태룡(국문) | 양문홍(철학) |
| 이영환(경제) | 이원부(정보) | 이지수(인철) | 임호일(독문) |
| 유시연(수문) | 장오현(경제) | 정진환(교육) | 조 은(사회) |
| 조의연(영문) | 차수련(경영) | 최순열(교육) | 한진수(회계) |
| 홍승기(무역) | | | |
- <가나다순>

학원사주

학원사주

육을 소수에게 한정시키고, 이들에게 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충족하는 한편, 다수의 단순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저의 선에서 현상유지를 시킴으로써 이들의 교육요구를 억제하고 계급질서를 재생산한다. 계급사회에서 정선노동과 육체노동의 적대관계는 필연적인 산물이다.

생산관계로부터 규정되는 교육구조가 상대적 독립성을 갖고 자체발전을 한다해도 그것이 경제구조의 기본모순을 해결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

도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취학기회의 불평등구조같은 한국사회의 교육모순은 학력과 사회적 특권의 결합이라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합입성취수준이나 이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직업·신분성취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에 따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제한되어있는 한국에서 교육인구의 팽창은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계급재생

그들을 새로운 체제확립에 이용한다. 일제하 제도교육을 분석하는 데는 식민지수탈을 위한 노동력정책으로서 교육체제, 식민지체제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교육체제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제국주의자들은 학과 교육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식민지 민중들이 친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이에 순응토록 길들이며 그 과정에서 식민지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개화라는 미명하에 제국주의 문화와 가치를 이식하는데 전념한다.

김신일교수는 식민지 잔재로 사

일제하 식민지주의교육·수행자들은 소위 민주교육이념으로 주장하기 위해 미국식으로 재교육시키는 일이었다. 교원재교육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교육자질단이 파견되었고 「중앙교육훈련소(TTC)」가 설치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의 교육문화가 미국의 영향권에 철저히 들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일제하 반공교육의 실패였던 친일교육자들이 미군정하에선 친미파로 둔갑하여 반공교육에 앞장섰으며 학교를 미군정도구로 전락시키고 통일보다 분단을 심화시키는 교육체제를 확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글쓰는 차례

1. 한국대학의 모순구조
2. 종립대학으로서 東大의 문제
3. 민족대학의 위상과 과제
4. 건학이념의 올바른 구현
5. 학문공동체를 지향하며

동안 체제교육이 분단구조를 어떻게 심화시켜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논의이다.

주요 한 개혁안이 중앙교무원에서 거부당하자 「조선불교총본원」과 그협력기관인 「조선불교도연맹」을 결성하여 전국승려 및 신도를 단일조직화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에 의해 탄압을 받으면서 힘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제2차 미·소공동개발과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이 확실시되자 「조선불교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 「불교청년회」 등은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여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명했다.

미군정하에서 불교자주화를 위하여 예속불교, 노예불교를 구조화하고, 이를 위해 기능하고 있던 사찰형 첩보부대와 자주불교의 활동토대확보를 위한 노력은 미군정의 반불교적·반민족적 정책과 이에 동조한 불교계내 비불교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당시 불교자주화의 기초를 마련하지 못한 한국불교는 오랜 세월동안 자신의 모순을 구조화하는 예측구조와 이에 서 파생되는 제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분열과 분열의 과정을 겪어왔다.

불교 변혁운동의 철학적 기초를 알아보기 위해 법성(法性) 스님의 글을 발췌하여 본다.

불교는 처음부터 교조화되고 편법화된 신적 메시지를 가지고 출현한 이념이 아니다. 불교는 기존의 계급사회의 모순과 기성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현실을 구성했다. 선가의 신학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다만 이데올로기의 특질로써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불교의 교육이념과 불교도태를 바탕으로 설립된 동국대는 보살도 실현의 성취적 장(場)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IV. 지식창출집단으로서 대학·대학인

고등교육 수혜정도를 지식인의 기준으로 삼는 유익한 판단은 무의미하며 비판정신과 비판력이 지식인의 필요충분조건일 것이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교수와 활동력과 비판력이 가장 왕성한 젊은이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그것은 무한한 내외 없이 민중세력의 기반 위에서 민족의 이익을 추체적으로 내세우며 민족총합, 민족회합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지식계급은 기본적인 지배계급의 사회적 보조물이라 하였다.

그들은 또한 계급적 중립성이나 객관성도 갖기 어려우며,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장악에 봉사하는 측면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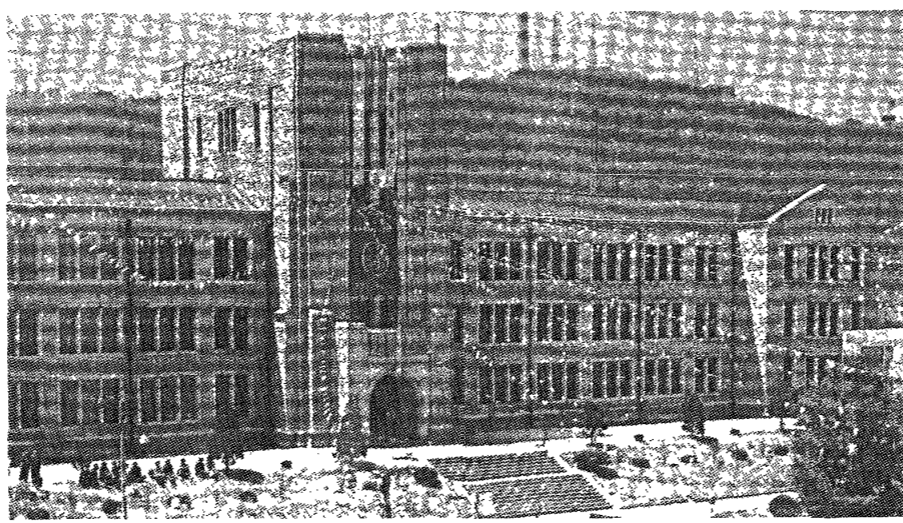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속성을 극복하고 민족과 민중의 현실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과 해방의 마당을 함께 민족대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정 경 라

<정경라 89수>

통일과 해방의 정토향해 정진해야

민족대학 무엇을 해야하는가



우리는 민족대학의 올바른 전통을 세워나갈 과제를 안고있다.

산의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외세지배의 교육구조

한국공교육은 독자성을 상실함으로써 경제적 식민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등의 제 영역에서 식민지적 요소를 재생산하는 기능으로 강제되고 있다.

회통제의 수단으로 학력에 의한 사회적 지위배 교육의 관료화 도구주의적 교육을 들었고 상내 교육수는 식민지주의 교육정책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해방후 교육계 조직차지와 교원양성기관의 중추를 구성한 점을 강조했다.

(2) 미군정기 재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오늘에 이르는 한국의 공교육 제도가 미군정기에 그 원형을 갖

자율성이 배제된 민족교육이란 결국 민족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왜곡하게 되고 보편성을 강요함으로써 민족모순을 심화시켜 갈 따름이다. 피압박민족의 교육적 갈등은 보다 많은 교육을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처한 역사적 현실의 질곡으로 부터 해방, 즉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통해 자기해방을 실현하고자 했던 교육적 요구이지 민주교육

(3) 원조경제체제기

미군정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국민생산력과 무관하게 사회의존적인 고등교육기관이 급속도로 팽창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계층인 관료, 소시민계층이 형성되었다. 한국교육은 미국교육의 조종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요소가 배제되고 미국식으로 탈색되기에 이르렀다.

(4) 교육발전론에 대한 검토

60년대에 도입된 발전론 반전을 뒷받침해 주며 식민지체제로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데 이용되었다.

3. 분단고착의 교육구조

민족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그

미국의 세계체제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산물인 반공교육은 민족통일이라든가 이념분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민족주의와는 적대적이념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이것은 민족교육이념을 왜곡시켰고 결과적으로 통일지향적이지 않은 분단고착의 교육기능으로 강제되어 온 것이다.

한국의 체제교육은 미·일에 의한 식민지 사회질서에서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해 입신출세·자유경쟁·능력주의·서구식 보편주의 등의 사회의식을 강화시켜 오면서 사회체제의 내부적 모순에 적극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체제교육은 분단과 외세라는 민족문제를 함께 계급적 이해와 갈등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학도호국단」 「국방교육」 「반공교육」 「국민사상의 통일교육」 같은 교육현상에서의 정신교육들은 분단순응주의적 이념으로 정지도 구화된 반공이념의 주입수단이다.

올바른 민족교육을 위해서는 대내외·대일관계에 정립과 민족자주성의 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민족의 입장에서 서지 못하고 서구적형식의 인간형이나 문화적 부국적자로서의 교육기능, 통일된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세계관을 가르치는 냉전체제교육기능, 집단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모든것을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편협한 이기주의·독선주의자세를 만들어 버리는 교육기능들은 모두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런 미명의로 은폐된 미국식 친미반공교육은 아니다.

민중정부는 45년 9월 22일 종래의 일제식민지교육을 일소하리 교육제도와 운영과 법규는 종전대로 심시한다는 것과 학교의 신성불침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결정 발표했다.

이러한 몇가지 중요한 새로운 제도를 결정했다. 교육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및 지방교육행정기구를 확충, 강화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편찬이 추진되었다.

특히 미군정에 의해 새교육체제에서 일차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교육이다.

III. 불교의 변혁운동과 교육이념 및 東大

현재 한국불교의 제문제는 골현대한국사의 불교적 변질이다.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며 피폐해진 불교가 민족분단의 위기에서 어떻게 민족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불교자주화와 민족통일, 해방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보자. 분단의 위기속에서 불교혁신세력은 「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중부 일체를 집수한것으로 시작하여 「불교혁신총연맹」으로 혁신단체들을 통합조직했으며 「전국불교단체총연맹」을 조직하고 「전국불교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민족불교혁신을 위

「종립」편협성 벗어나 민중기반 다질때

한국공교육의 식민지성을 재생산하고 있는 교육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서 일제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미군정기 재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원조경제체제의 부패분할 고등교육기관의 팽창과 교육인종의 성격에 대한 검토, 교육발전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일제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제국주의 교육의 본질은 식민지 민족교육의 자기해방적 기능을 억제하고 제도교육을 독점하는데 있다.

식민지적 지배는 구시대적 식민지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식민지성을 온존·육성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구시대 식민지국의 교육자나 행정관료들을 재동용하여

추했다는 점에서 교육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미군정은 45년 9월 22일 종래의 일제식민지교육을 일소하리 교육제도와 운영과 법규는 종전대로 심시한다는 것과 학교의 신성불침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결정 발표했다.

이러한 몇가지 중요한 새로운 제도를 결정했다. 교육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및 지방교육행정기구를 확충, 강화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편찬이 추진되었다.

특히 미군정에 의해 새교육체제에서 일차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이런 미명의로 은폐된 미국식 친미반공교육은 아니다.

민중정부는 45년 9월 22일 종래의 일제식민지교육을 일소하리 교육제도와 운영과 법규는 종전대로 심시한다는 것과 학교의 신성불침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결정 발표했다.

이러한 몇가지 중요한 새로운 제도를 결정했다. 교육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및 지방교육행정기구를 확충, 강화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편찬이 추진되었다.

특히 미군정에 의해 새교육체제에서 일차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I. 머리말

60년초를 기점으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학은 사회의 어느 영역에 있어서보다 더욱 철저한 정치적 갈등의 현상으로서 진통을 겪고 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상황이 미국군대의 점령지로 바뀐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겠다. 소위 「해방」이란 것이 기실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아직도 지식인으로서 대학인의 선도적역할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뿌리를 박고있는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민족대학 지향이라 생각한다.

민족대학의 정의를 대학설립의 인격·목적 토대의 민족적 의의에서 구하거나 교육내용, 교육성공에 기준을 두고 찾는 시도는 우리사회에선 무의미하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이 사회에는 민족대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닌 미래를 향한 현재의 모습이다.

민족대학이란 이 땅의 대학들이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모습이라 생각하며 여기서는 한국교육현실과 불교 지식창출집단으로서 대학·대학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I. 한국교육의 현실과 모순

40여년간 체제유지에 봉사해 온 기존의 제도교육이 발전적 기능을 상실하고 역사발전적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한국교육의 위기가 불러도 부리는 없었다. 교육은 사회발전이 필요한 객관적 요구이며, 변혁기에 있어 교육의 중심과제는 무엇인가도 변혁주체의 인간형성 즉, 변혁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에 있다.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치·경제법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회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육의 모순은 계급불평등 재생산교육·외세지배 교육구조·분단고착화의 교육구조라 본다.

1. 계급불평등 재생산교육

노동의 분화는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본체제 생산양식에서 비롯되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보다 많은 교육투자를 요구하는 기술부문의 교

변혁운동에 기여할 인간형성이 과제

「보살도」 「실현」의場 되어야

체제교육으로 계급불평등구조 심화

의 사회적 기능이란 계급의식을 분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하며 계급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공교육의 현실에 있어 자율성의 부재, 반민중적 교육내용, 전근대적 교육방법등 모든 교육현상의 문제는 한국자본주의가 갖는 식민지성 및 파시즘적 성격을 반영한다. 한국의 교육은 대중에게 있어 노동계급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써 또는 중간계급으로서의 사회적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통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구조가 발전하거나 교육기회가 확대된다고 해서 사회적 이동이 증대되거나 사회적 변동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지식계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사회적 성취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정체상 교육기회의 확대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불평등현상은 감소되더라도

III. 불교의 변혁운동과 교육이념 및 東大

현재 한국불교의 제문제는 골현대한국사의 불교적 변질이다.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며 피폐해진 불교가 민족분단의 위기에서 어떻게 민족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불교자주화와 민족통일, 해방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보자. 분단의 위기속에서 불교혁신세력은 「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중부 일체를 집수한것으로 시작하여 「불교혁신총연맹」으로 혁신단체들을 통합조직했으며 「전국불교단체총연맹」을 조직하고 「전국불교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민족불교혁신을 위

이런 미명의로 은폐된 미국식 친미반공교육은 아니다.

민중정부는 45년 9월 22일 종래의 일제식민지교육을 일소하리 교육제도와 운영과 법규는 종전대로 심시한다는 것과 학교의 신성불침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결정 발표했다.

이러한 몇가지 중요한 새로운 제도를 결정했다. 교육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및 지방교육행정기구를 확충, 강화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편찬이 추진되었다.

특히 미군정에 의해 새교육체제에서 일차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교육이다.

III. 불교의 변혁운동과 교육이념 및 東大

현재 한국불교의 제문제는 골현대한국사의 불교적 변질이다.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며 피폐해진 불교가 민족분단의 위기에서 어떻게 민족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불교자주화와 민족통일, 해방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보자. 분단의 위기속에서 불교혁신세력은 「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중부 일체를 집수한것으로 시작하여 「불교혁신총연맹」으로 혁신단체들을 통합조직했으며 「전국불교단체총연맹」을 조직하고 「전국불교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민족불교혁신을 위

이런 미명의로 은폐된 미국식 친미반공교육은 아니다.

민중정부는 45년 9월 22일 종래의 일제식민지교육을 일소하리 교육제도와 운영과 법규는 종전대로 심시한다는 것과 학교의 신성불침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결정 발표했다.

이러한 몇가지 중요한 새로운 제도를 결정했다. 교육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및 지방교육행정기구를 확충, 강화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편찬이 추진되었다.

특히 미군정에 의해 새교육체제에서 일차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교육이다.

III. 불교의 변혁운동과 교육이념 및 東大

현재 한국불교의 제문제는 골현대한국사의 불교적 변질이다.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며 피폐해진 불교가 민족분단의 위기에서 어떻게 민족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불교자주화와 민족통일, 해방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보자. 분단의 위기속에서 불교혁신세력은 「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중부 일체를 집수한것으로 시작하여 「불교혁신총연맹」으로 혁신단체들을 통합조직했으며 「전국불교단체총연맹」을 조직하고 「전국불교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민족불교혁신을 위

이런 미명의로 은폐된 미국식 친미반공교육은 아니다.

민중정부는 45년 9월 22일 종래의 일제식민지교육을 일소하리 교육제도와 운영과 법규는 종전대로 심시한다는 것과 학교의 신성불침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결정 발표했다.

이러한 몇가지 중요한 새로운 제도를 결정했다. 교육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및 지방교육행정기구를 확충, 강화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편찬이 추진되었다.

특히 미군정에 의해 새교육체제에서 일차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社員募集

1. 募集部門 및 應試資格

募集部門	人員	應試資格
事務職 및 營業職	○○名	1. 正規4年制 大學 募集該當學科 專攻者로서 '90年 2月 學士學位 取得豫定者 또는 既取得者
技術職	○○名	2. 1962年 1月 1日以後 出生者
研究職	○○名	1. 該部門 碩士學位以上 所持者

※各部門 大凡이 兵役義務 畢은 免除者
※研究職은 兵役法에 의한 特例補充役 該當 未畢者

2. 應試方法

① 書類審査 ② 筆記試驗: 英語, 論文(事例研究) ③ 面接
但, 研究職은 筆記試驗 없음

3. 筆記試驗

① 日時: 1989年 11月 5日(日) 午前 10時
② 場所: 中央高等學校(서울 鍾路區 桂洞 所在 ☎ 742-1321~5)

4. 提出書類

① 入社志願書 및 自己紹介書(当社 所定樣式).....各 1部
② 最終學校 全學年 成績證明書(研究職은 大學成績 包含)..... 1部
③ 學位, 資格證 寫本(研究職에 限함).....各 1部

5. 願書交付 및 接受

• 交付期間: '89. 10. 5(목) ~ 10. 14(토)
• 交付場所:

本 社	(740) 7155~7	서울特別市 鍾路區 蓮池洞 263
釜山支店	(463) 3841	釜山直轄市 中區 中央洞 4街 85-8
大邱支店	(753) 9901	大邱直轄市 東區 新川洞 89-1
光州支店	(525) 9911	光州直轄市 北區 新安洞 5-3
大田事務所	(626) 2311	大田直轄市 東區 佳陽洞 288-3
馬山事務所	(93) 2661	馬山直轄市 梅洞 462-3
蔚山工場	(72) 7611	蔚山直轄市 南區 梅岩洞 360
全州工場	(72) 1234	全州直轄市 八福洞 2街 339
鮮一(仁川工場)	(867) 5071	仁川直轄市 西區 佳佐洞 285

• 接受期間: 1989年 10月 10日(火)~10月 14日(土)
• 接受場所: (110-470) 서울特別市 鍾路區 蓮池洞 263 株式會社 三養社 總務部
電話: 740-7155~7

6. 其他

- ① 募集人員中에는 系列會社(鮮一포도糖株式會社, 三南石油化學株式會社, 三養化成株式會社) 人員이 包含되어 있음
- ② 國家報勳對象者는 關係法에 의거 優待함
- ③ 郵便接受는 10月 14日(土) 13:00까지 到着分에 限함
- ④ 其他 詳細한 事項은 当社 總務部(電話 740-7155, 7156, 7157)로 問議바람

1989年 9월



• 總務部門: 福利에 關한 SF, 福利에 關한 SF, 總務部
• 食品部門: 食糧, 加工肉, 製粉, 製糖, 配合飼料
• 化學部門: 印刷機械, 印刷, 各種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ET BOTTLE
• 機械部門: 鑄造, ROLL, POWER PRESS, 産業機械, 製紙機械

지금 아시아와 제3세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영화는 張藝謀 감독의 「紅高粱」(붉은 수수밭)이라고 생각된다.

정치성이나 이념체제는 일체 묵살하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태고 때부터의 일상생활을 의식없이 영위해가는 이렇듯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한번 결정적으로 깃발하면, 그들은 결정적으로 분노하며 반격한다는 단순한 주제의 「붉은 수수밭」은 그 환한 표현기법과 함께 당대의 위대한 영화로 보인다.



주제의 효과적 전달을 위하여 일체의 세부묘사를 극도로 생략하고 있는 대법한 표현기법은 그것이 치밀히 계산된 결과라고는 하였으나 張藝謀의 성격으로 보인다.

<붉은 수수밭>을 보고나서 절실히 느낀것은 결국 영화란 그 감독의 성격 내지는 인격의 표현이란 사실의 재확인이었다.

화면의 간결하면서도 거친 에너지가 분출하는듯한 구도, 위기

강렬한 표현 진실성 돋보여 정책부재로 「방화말살」여전

감미 저절로 느껴지는 선명한 색채, 중국인족 고유의 타악기놀이와 파격으로 사용된 배경음악. 이 작품의 모든것은 서구문화에서 발달한 양식한 양식의 예술의 모든것을 張藝謀식으로 재편성하여 전혀 새로운 독자적인 기법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군의 중국침략에 대해서 그런것이 있는지 없는것인지 일인 반구의 언급도 없다. 그러나 광막한 수수밭을 짓기고 나타낸 그들은 이른바 항일분자를 그럭에 설치한 흉나루에 매달고 그들의 생체를 벗긴다.

일본군의 잔악상을 말하는 다른 어떠한 묘사도 더 필요없다. 생체가 벗겨지는 자가 하나는 그 지역의 이탄나 도둑이고 다른 하나는 여주인공의 양조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국민당원이라는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둑을 선량한 백성들에게서 돈을 뺐기는하나 일단 위기에 직면하면 감언이 일이나 대의를 위해 싸우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

독창성지닌 자국영화진흥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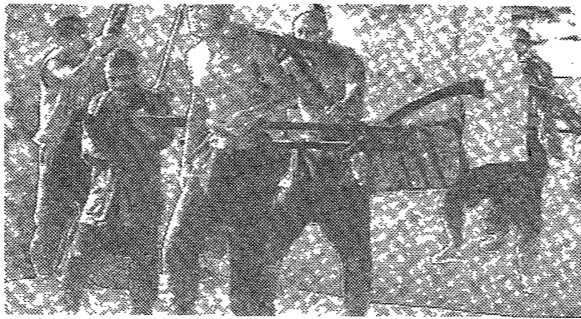
— 붉은 수수밭을 통해본 아시아영화의 흐름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또 하나 국민당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공산제하에서 만들어진 영화지만 치졸한 체제선전 따위는 가들며 보지도 않고 오직 이렇듯는 사람들의 힘의 분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張藝謀는 참으로 대국인다운 품모가 있는 감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張藝謀는 폭발과 정열이 결여된 11억 중국인에게 정신적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겨냥한 자국과 활력소는 한국인을 포함하고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학대받는 아시아인과 제3세계인이 함께 느껴야 하겠다.

<붉은 수수밭>과 거의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한국

의 눈길을 끌었다. <부용진>수준의 영화를 만들수 있는 감독은 여간만 갖추어진



다면 한국에도 여럿 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부용진만을 전채로 선택

트로 만들고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과 시설조건들을 제공한다면, 광활한 수수밭도 그것을 시간들

시력을 부럽게 바라볼뿐이다. 한국정부의 U I P 수용에 따르는 방화말살정책은 중국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만영화는 시장에서 별로 보지않았지만, 작년 올림픽때 문화예술회관의 일환으로 우수외국영화시사회에 출품된 <공포의 소년> (The Terrorist)을 보고 평가할때 대만영화인들도 세계수준에 육박하려는 노력이 현저했다. 그것은 액션·미스터리풍의 오락영화형식이기는 했으나 담겨진 메시지가나 표현기법은 독창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경제적여유를 보

<붉은 수수밭> (사진)의 힘찬 표현기법은 억압받는자들의 분노와 중국인족고유의 의식을 잘 보여주었으며 <부용진>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그들체제의 교조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제는 대만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국유화에서 돌아와 그 정신을 지킴 보여주고있는 셈이다.

유 현 복

<예술대교수·영화연출>

들에 잠을 못 이루는 불쌍한 불행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맺는다. 「조국의 아픔을 모르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황 동 환 <인문대 국문과>

말투기!



제도교육 연장의 전공선택 도움안돼

국민학교 시절을 곰곰히 되씹어 보면 주위의 어른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하였다.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래?』라고 물을때마다 나는 이러한 대답을 한 기억이 난다. 『내장이 필요요.』



야 할 시기가 시나브로 눈앞에 다가왔다. 국문화를 전공한 나는 마땅히 취업의 문이 넓은 것은 아니다.

전문화 인력 낭비는 사회구조모순

보지 못한채 무거운 령가방만 시계 추첨제 축적된 이에게 매고 다녔다.

전공을 계속 살려 나가면서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일명 트기에 내가 스스로 매몰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에서 벗어나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열정적으로 수행해 나가자! 라는 말을 들을때마다 나는 마땅히 취업의 문이 넓은 것은 아니다.

리들은 기소되어 합집행을 받고 Z의 죽음은 야당대통령후보였던 Z에 대한 정부의 암살음모였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1년후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젊은 치안감사는 외국의 자동차사고를 당하고 관련증인들도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화면 가득히 밀려오는 군사 독재의 핏글레를워르 「Z, 그는 아직도 민중의 가슴속에 살아 있다」 라는 자막이 흐르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우리는 이 영화가 결코 그리스의 상황만을 그린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제트」



가 끝나고 건물밖으로 나오던 Z (이브 몽탕분)가 의문의 트럭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옮겨진다. 사고3일후 Z는 숨을거두고 정부부는 이를 사고사로 발표, 처리한다. 하지만 이를 믿지않는 사람들의 시위와 진실을 밝히려는 압력에 계속되면서 짧은 치안감사의 진실규명은 시작된다.

계속되는 정부의 축소, 은폐 조작에 맞서 사건을 탐험한 치안감사는 이사건이 사고가 아니라 우익단체와 경찰국장까지 관련된 살해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결국 경찰국장등 정부고위관

작가의 말에서도 보이듯이 「영화속의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든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가슴으로 느낄수 있다.

정치적 위험속에서도 민중총리의 편에서 훌륭한 영화를 만든 코스타 가브라스감독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극장문을 나서는 기자의 머리속에는 왜 우리의 손으로는 이렇게 바른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영화인이며! 각성하라! <유권준기자>

메이리

▲우리는 파블로 프의 「조 건반사실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개에게 밥을 줄때마다 밥을 흘리면 나중에는 밥을 소리만 듣고도 개의 입에는 침이 고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조건반사실형이다. 포하의 재미있는 실험은 버릇의 조건 반사실형이다. 버릇을 유리대롱속에 넣어 놓으면 처음에는 본래의 습성대로 마구 뿜는다. 하지만 나중에는 머이상 휘지않고 기어다니게 된다. 이렇게 길을 틀어 놓으면 유리대롱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어다닌다는 것이다. ▲제약된 반복은 결국 본래의 습성을 만회시켜 고 기절적 습관을 만들어 낸다. 사람이 마찬가지이다. 제 약된 환경속에서의 반복은 쉽게 관념감을 불러 오고, 불

불 감 증

감증에 걸리게 한다. 불감증이란 무엇인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모르게 하고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반지성적 독소이다. 일단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 다음에는 좀 더 고강도의 사건이 아니면 관심조차 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 갇히게 된다.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 분노라든가 비판의식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될 감정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수없다. 5공청산이나 6공의 종간평가, 입수경화우 사법처리 반대나 전교조의 문제가 걸자 世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불 감 증

불감증 탓이라 여겨진다. 또한 감이 고르게 나누지 못함을 아쉬워 해야할 시기에 자기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지 못한것을 한탄하는 것도 바로 개인적 불감증의 소치라고 밖에 할수없다.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지 못하는 무비판적·자극적인 열로 무주저널리즘의 속성도 여기에 한몫을 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 분노라든가 비판의식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될 감정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수없다. 5공청산이나 6공의 종간평가, 입수경화우 사법처리 반대나 전교조의 문제가 걸자 世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現代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를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창의력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며 가슴엔 언제나 휴머니즘이 살아 숨쉬는 사람.

現代의 미래를 이끌어 갈 바로 당신입니다.

1. 모집부문·인원 및 자격

구분	모집부문	인원	우 시 자 격
이	기계공학·전기공학	1,450명	● 1961년1월1일 이후(신사)
	전자공학·화학공학		● 1959년1월1일 이전(신사)
공	신용공학·금융공학	1,060명	● 1961년1월1일 이후(신사) 제외
	재료공학·조선공학·물리·화학		● 1961년1월1일 이후(신사) 제외
인사	상경계·법정계	1,060명	● 1961년1월1일 이후(신사) 제외
	인문계		● 1961년1월1일 이후(신사) 제외

2. 전형방법

가) 1차: 필기시험
 이 공 계: 영·어·전공
 인문·사회계: 영·어·전공(경영학·경제학·무역학·법학·행정학·영문학 등 중 택일)
 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1989년 11월 5일(일) 오전 9시
 나) 장소: 서울지역점수지
 1) 이 공 계: 건국대학교(성동구 모전동)
 2) 인문·사회계: 경희대학교(동대문구 회기동)
 ● 울산지역점수지: 울산대학교(경남 울산시 무거동)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등사 소정양식).....2통
 ●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1통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1989년 10월 4일(수)~10월 17일(화)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공휴일도 접수함)

6. 기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만 도착하여야 함
 나) 우편 접수자는 수험표 반송을 봉투(우표부착·본인주소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 우송할 것
 다) 현역 군 복무중인 자는 89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라)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1989년 10월

現代 人力管理委員會